

라이즈, LA시의회 감사패 받았다



▲ 그룹 라이즈가 존 리 LA시의원, 폴 크레코리안 LA시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한국 보이그룹 라이즈(R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LA시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라이즈는 지난 20일 LA 피콕 씨어터(Peacock Theater)에서 LA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관객들은 객석에서 일어나 폐창을 부르고 포인트 안무를 따라 추는 등 축제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라이즈는 다음날인 21일 LA시청에 초청됐다. LA시의회는 라이즈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LA의 글로벌 홍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존 리 LA시의원은 감사패를 전하며 “라이즈는 ‘Get A Guitar’라는 음악을 통해 LA를 세상과 연결하는 위대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LA 전역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는 LA에게 보내는 러브 페터이자, LA의 랜드마크를 알리는 작업물로서 완벽한 파트너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앤토니는 라이즈를 대표해 “LA도 라이즈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라이즈는 데뷔곡 ‘Get A Guitar’ 뮤직비디오를 LA 올로케이션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KCON LA 2023’ 출연, LA관광청의 역대 최대 규모 글로벌 광고 캠페인 ‘LA는 현재 상영중(Now Playing)’ 영상 배경음악 선정, 피콕 씨어터에서 첫 팬콘 투어 개최 등 다방면에서 LA 와의 만남을 쌓아가고 있다.

영화 ‘지구를 지켜라!', 할리우드서 리메이크



▲ 영화 ‘지구를 지켜라’ 포스터. 사진=CJ ENM

시대를 앞서간 B급 영화로 평가받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감독 장준환)가 개봉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

CJ ENM은 지난 20일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 ‘부고니아(BUGONIA)’ 제작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여운 것들’,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더 랍스터’ 등을 연출한 그리스 출신의 거장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가여운 것들’로 지난 3월 제96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톰스타 엠마 스톤이 주연을 맡는다. 애플TV+ ‘플라워 킬링 문’, 넷플릭스 ‘파워 오브 도그’에 출연하며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로도 선정된 제시 플레먼스까지 합류해 기대를 더한다.

‘지구를 지켜라!’의 주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부고니아’는 음모론에 사로잡힌 두 명의 주인공이 유명 제약 회사의 CEO를 지구를 파괴하려는 외계인이라고 확신하고 납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2003년 개봉한 영화 ‘지구를 지켜라!’는 배우 신하균 백윤식 황정민 등이 열연, 당시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참신한 스토리와 ‘B급 감성’ 등으로 ‘시대를 앞서갔다’, “저주 받은 걸작” 등의 평을 들으며 마니아 팬층을 형성했다.

CJ ENM은 4년 전부터 이 영화의 영어판 리메이크를 추진해왔다.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여친 폭행 영상 공개되자 사과

8년 전 당시 여자친구를 폭행한 영상이 최근 공개된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 대디(54)가 결국 사과했다.

지난 19일 퍼프 대디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퍼프 대디는 “영상 속 나의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당시 그 행동을 했을 때도 (내 자신이) 역겨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CNN은 퍼프 대디가 2016년 3월5일 당시 여자친구인 가수 캐시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



▲ 퍼프 대디가 전 여자친구 폭행 영상에 대해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TV

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서 퍼프 대디로 보이는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캐시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세게 밀치고 발로 차는가 하면, 후드 티셔츠의 뒷부분을 잡고 객실로 질질 끌고 가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퍼프 대디와 캐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교제했고, 캐시는 지난해 11월 퍼프 대디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2016년 발생한 사건인 뒷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퍼프 대디는 과거 그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여성에게서도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